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9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음 1월 9일)

제15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

‘국민과 세계의 힘 모아 통일의 길을 열자’를 주제로한 2016 피스로드 행사가 열린 1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세계 각국 참가자들이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출발을 하고 있다.



정계 복귀 움직임 ‘초읽기’ 들어간 정동영

## 도내 정치권 지형변화 중심 부상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정치재개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전북 정치권의 지형변화에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4.13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정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의당 ‘리브콜’이 잇따르고 있어 야권연대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

15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정계복귀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이르면 16~17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의 측근은 “정치재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국민의당에 합류할지는 현재까지도 결정된 게 없다”고 조심스레 말을 전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재·보선 치열 전복에서 무소속 연대를 형성해 독자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정 전 장관은 전주 완산갑에

이르면 내일 입장 발표

국민의당 선택 가능성 커

실제 예비후보들도 리브콜

출마하고 신진 전 의원과 연대해 무소속으로 동반 당선됐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정치적 미아로서의 정치적 추진력 한계 등을 체감한 터라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야권연대의 선봉장’, ‘남북관계의 마지막 연결고리’로서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무소속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4년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의 첫 제품 생산을 지켜봤던 정 전 장관의 정치재개 일성이 남북문제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무소속 보다는 국민의당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정계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정 전 장관이)진보블록을 형성해 대표주자가 되면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같은 관측 배경엔 ‘조지력’에 앞선 더민주당과 ‘새바람’을 등에 업은 국민의당 간 정치적 세 대결을 놓고 어느 쪽이 우열이라고 선포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 그만’ 한 상태다.

전북 정치인 가운데 야권을 좌우할 배경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재개 선언이 임박해 있는 정 전 장관의 행보에 따라 전북지역 총선이 요동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하듯 국민의당 입장에선 정 전 장관이 합류하면 광주전남에 부는 바람을 전북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전례에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을 요구하는 국민의당

측의 리브콜과 일부 단체에서 정계에 발을 내딛며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국민의당 장세환(전주완산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동영 전 의원의 영입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1일에는 국민의당 예비후보인 이기동(전주 완산갑)·한명규(전주 완산을)·이용호(남원·순창)·정현을(익산시장) 등이 도의회에서 정 전 장관의 ‘입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일부 단체도 정 전 장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복발전을 위한 도민모임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동영 전 의원이 정치재개 결정을 속히 내려야 권연대의 선봉에 서 달라며 ‘국민의 여망인 통일의 방향으로 다시 틀어 놓고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가능하도록 정계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 “사드배치, 美기준 최우선”

국방부, “군사적 효용성 감안… 국민 영향 최소화”

국방부는 15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 지역 선정 기준과 관련, “미국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를 잠정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배치지역을 이미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 “현재 운용중인 모든 레

이더가 그런 안전기준에 따라서 설치 돼서 정상적으로 운용 중에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도 그런 안전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운용,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반대하는 것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드는) 기준에 배치 돼있는 레이더와 유사하게 안전기준에 따라서 배치되면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KN-08부대의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 “관련된 정보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실전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한미정보당국이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600th  
영북부안 600주년  
부안정명600주년

BUAN MASIL FESTIVAL  
2016. 5. 6 금 ~ 5. 8 일  
전북 부안군 일원 (주행사장: 부안읍)

‘축복의 땅’ 부안으로 마실도 가고, 오복도 받고!  
어화세상 벗님네야 복 받으러 마실가세~